

## 언론중재위원회, 2012년 국정감사 수감



▲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 중인 권성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국회에서 2012년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치로 인해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감사는 서면질의와 확인감사로 이뤄졌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회에 대한 의원들의 주요 질의는 다음과 같다.

###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 제고 주문

조해진 의원은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정절차를 통해 나가는 피해구제보도문의 위치나 크기 등이 아직 미흡하다”면서, 위원회가 이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확대해야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신문사는 영세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만큼 훈련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에 더 많은 인터넷신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강화할 필요 있어

강동원 의원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언론사가 동일 유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심위의 결정이 솜방망이 조치이기 때문”이라며, 선심위의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스통신의 파급 효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